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2018. 10. 8.

금 융 위 원 회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제가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 있던 2016년에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 '16.1월 방안 발표, '16.7월 은행 · '16.9월 저축은행 사잇돌 출시

- 중금리 대출 보증은
과거 서울보증이 취급해본 적 없는 형태였고,
중·저신용자에 집중된데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서울보증에게는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받고,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밖에 없던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의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단층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판단 하에
사잇돌 대출 보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태어난 정책 중금리 사잇돌 대출이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잇돌 공급액) '16.말 3,729억원 → '17.말 13,295억원 → '18.2Q 21,181억원

** (민간 중금리 공급액) '16.말 9,481억원 → '17.말 37,293억원 → '18.2Q 44,933억원

II. 정책 추진경과

< 중금리 대출 활성화 필요성 >

- 금리단층 현상과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은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 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에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며,
금융회사는 저위험 고객들을 선별해 내지 못해
경쟁력과 자산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따라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는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의 두 가지 금융혁신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 추진경과 >

☐ 그간 정부는

중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대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첫번째로 사잇돌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 사잇돌 대출은 금융회사와 보증보험 간 리스크 분담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중금리대 신용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였습니다.

- '16년 7월 은행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18.9월말 현재까지 약 26만명의 차주들에게
약 2조 6천억원의 중금리대 신용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증 없이도 민간 자체적으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 업권별 인센티브 주요내용

-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30~50% 이상 유지 필요) 산정시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 (여전) 총자산 대비 대출규제(30% 이내 유지 필요) 적용 시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상호금융)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비율(전체 대출의 2/3 이상 유지 필요) 계산시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 각 업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도
'16년 말 1조원에 못 미치던 수준에서
'18.6월말 4조 5천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평가 〉

-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의도했던 중금리 대출 시장조성(market building)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 정책의 초점은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금융회사들은 보증 없이도 중신용자들에게
적정한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저위험 중신용자들을 잘 선별해 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Ⅲ.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도약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1. 업권별 중금리 대출 요건 재정비 >

- 먼저 각 금융업권이 업권별 특수성에 맞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과 인센티브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중금리 대출 요건*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습니다.

* ①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②대출금리 20% 미만, ③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④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 앞으로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적게는 0.5%p에서 많게는 10%p까지 평균금리 수준을 낮추고, 최고금리 요건도 이에 맞게 낮추어 차등화하고자 합니다.

< 업종별 민간 중금리 대출기준 변경사항 >

	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기존(16.5%) 대비 인하 폭	△10.0%p	△8.0%p	△5.5%p	△2.5%p	△0.5%p
최고금리	10.0%	12.0%	14.5%	17.5%	19.5%

- 이를 통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뿐 아니라
주로 고신용자에 저금리 영업을 하는 은행·상호금융업권,
그리고 10% 중반대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여전사들도
제공 가능한 수준에서 가급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 2. 중금리 대출 공급경로 및 공급규모 확대 〉

- 두번째로 중금리 대출 공급경로를
더욱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 기존에 공급하던 사이트들 대출의 경우,
 - 소득이 낮거나 재직연수가 짧아
중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신용자들에게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 더 많은 소비자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약 2조원 가량 증액할 예정입니다.(3.15 → 5.15조원)
-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당시부터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넘었고
오랜 산고 끝에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통과된 만큼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적극 공급하여
중금리 시장의 ‘축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간 “고금리” 라는 오명을 못벗어났던
카드론에 대해서도 금리 **적정화**를 유도하여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론의 경우에도
중금리 요건(가중평균금리 11%)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카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위험 중신용자들을 선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적용 배제

- 이처럼 공급경로가 다양화될 경우 ‘19년에는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공급규모(사잇돌 + 민간 중금리): '17년 3.5조원 → '19년(예상) 7.9조원

〈 3.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

- 세번째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금리 대출의 지향점은 시장 원리에 따라
중신용자의 부담 완화와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금융회사들의 차주 선별 능력 강화,
즉 신용평가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비금융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를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경우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 등 금융소비계층이
신용도를 적절하게 평가받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이력 등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문제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대출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도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 2년 넘게 축적해 온 정보를
중금리 대출 발전을 위해 공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 등으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여
서울보증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더욱 더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V. 마무리말씀

-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의 금리 단층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며, 금융업권 전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 하지만 현재의 금융환경은 중금리 대출 확산에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인상 압박으로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은 가장 먼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형성된 중금리 대출 시장이 다시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정책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중금리 대출을 좀더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발전시켜서 맞춤형 중금리 상품으로 폭넓게 애용되고 훨씬 더 많이 포용하는 중금리 금융으로 발전·성숙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부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